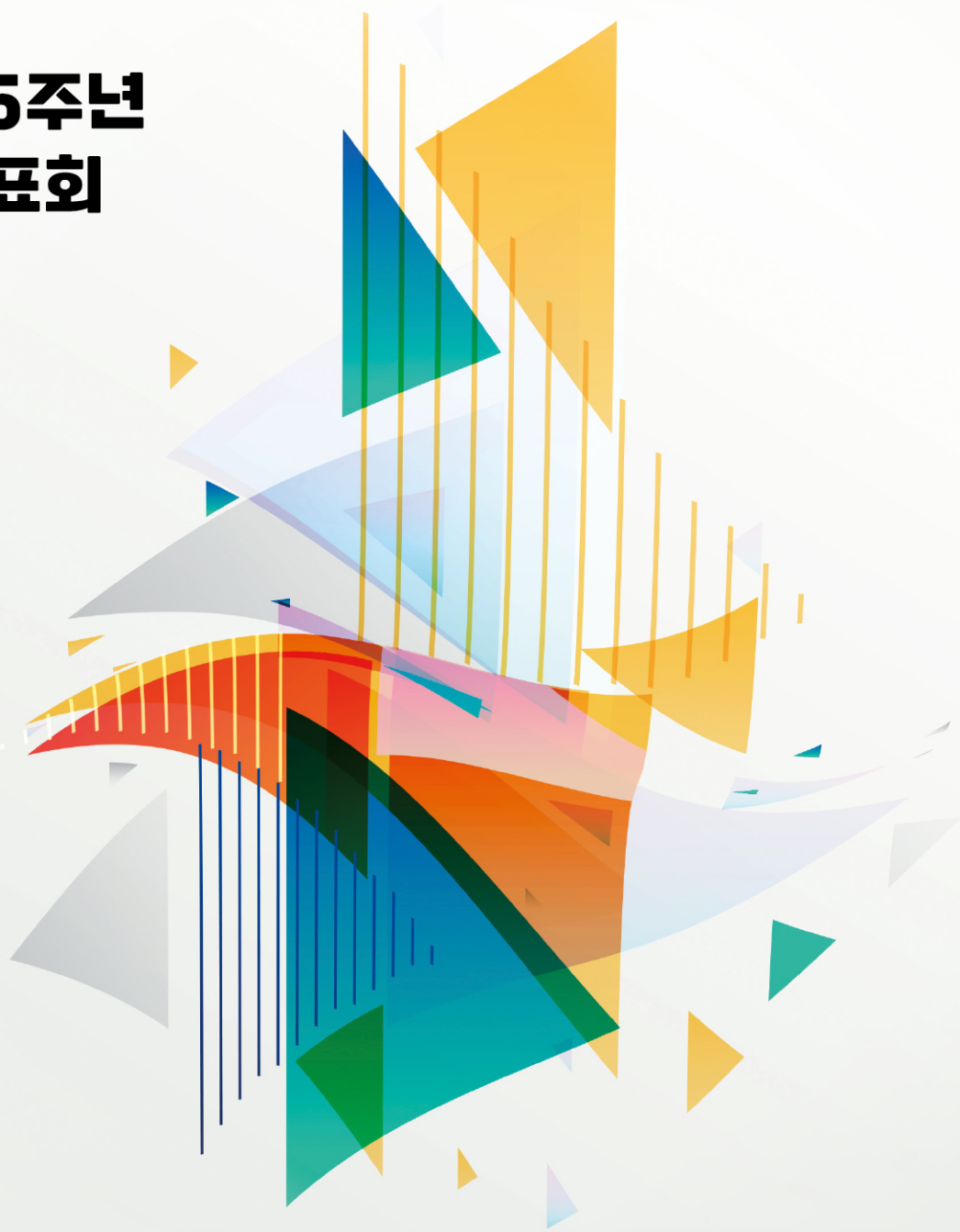


창악회
창립 65주년
정기발표회



2023 CMSS FESTIVAL

작곡가

김우진 (제46회 창악회 작곡콩쿨 최우수상)

조영미 김지현 류경선 신숙경 오이돈

2023. 5. 11(목) 오후 7:30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김우진

“Luciferin II” for Flute, Violin, Cello and Piano

* 제46회 창악회 작곡콩쿨 최우수상작

Fl. 안병건 Vn. 박서령 Vc. 이한길 Pf. 김현아

조영미

대금과 비브라폰을 위한 “만석중놀이”

대금 이현준 Vibraphone 한문경

김지현

“Moving Light” for Cello Solo

Vc. 김경란

Intermission

류경선

“The Galaxy” for Clarinet and Piano

Cl. 김민욱 Pf. 윤혜성

신숙경

“하얀 가면들의 춤” for Violin, Cello and Piano

Vn. 안세훈 Vc. 김경란 Pf. 김아름

오이돈

피아노 연탄을 위한 “흥타령”

1st Pf. 허자경 2nd Pf. 허원숙



김우진

김우진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작곡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작곡가 백현주, 김동준을 사사하였으며 현재 유도원 교수를 사사하고 있다. 과학적 현상들을 음악적 소재로 치환하여 작곡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으며, 2022 진주 이상근 작곡 콩쿠르 2위 수상 및 Academy X PNU 등에서 작품발표를 하였다. 현재 부산청년 작곡가 모임, Project the bridge, Nolas와 Ensemble Um-san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Luciferin II” for Flute, Violin, Cello and Piano

* 제46회 창작회 작곡콩쿨 최우수상작

루시페린(Luciferin)은 생명체가 빛을 내는 데에 관여하는 물질을 말한다. 반딧불이, 플랑크톤, 그리고 심해에 있는 초롱아귀 등등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살아갈 때 루시페린을 만들어 살아간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인류의 발전으로, 밤낮 구분 없이 펼쳐지는 빛 공해 및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이러한 물질을 만들어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멈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잠시라도 이 곡을 작곡하고, 연주하고, 듣는 동안 가급적 낮에 작곡하고, 패드가 아닌 인쇄된 악보로 연주하고, 스마트폰을 끄고 연주를 들음으로써,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져가고 있는 반딧불이와 같은 생명체들과 전기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스마트폰과 전구들의 존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당연한 것처럼 자리하고 있는 요즘을 떠올리며, 잊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조영미

조영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후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와 듀크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다.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여성작곡가회 정기연주회, ACL-Korea 국제음악제,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과, International forum on Acoustical Ecology, High Score Contemporary Music Festival 등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 SoundSCAPE Festival에서 퀀텟 위촉작품을 발표하였고, Singapore Asian Composers Festival에서 당선작곡가로 선정되어 싱가포르 에스플라네이드에서 공연하였으며, 최근에는 New York City Electroacoustic Music Festival에서 소프라노와 피아노, 라이브 4채널 전자음향을 위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현재 전남대와 국민대에 출강하며, 컴퓨터음악저널 <에밀레>의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금과 비브라폰을 위한 “만석중놀이”

만석중놀이는 고려시대 민중들이 즐겼던 그림자극이자 축제로서, 잘 알려진 조선시대의 민속놀이와 여러 면에서 색다르다. 오랫동안 묻혀있다가 20세기 말 만석중놀이 보존회의 복원으로 재현되었고, 이를 감상하며 받은 영감이 작품의 동기가 되었다. 불교의식과 같은 스님의 단선 가락, 종이나 팽과리, 북 등 타악기가 교차하는 건조한 소리, 나무인형 만석중과 십장생 등 개별 캐릭터가 순서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투박한 장면전환, 경건한 독경을 배경으로 직접 그림자놀이에 참여하며 자유롭게 파티를 즐기는 관객 분위기의 부조화를 한 공간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옛 놀이공연의 요소들을 재해석하고 작곡가의 상상을 더하여 대금과 비브라폰의 음색으로 표현한다.



김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독일 쾰른 음악대학에서 Johannes Fritsch 사사, 에센 음악대학에서 전자음악을 Thomas Neuhaus와 Roman Pfeifer 사사, 동 대학 작곡 최고과정에서 Günter Steinke를 사사하였다. 다수의 Festival에서 작품을 위촉받아 발표하였으며, 한국여성작곡가회, 한국전자음악협회, 창악회, ACL Korea, ISCM Korea, 신음악회, 델로스 등의 회원이다. 현재 앙상블 비트윈의 음악감독이며, 성신여대와 이화여대에 출강하고 있다.

“Moving Light” for Cello Solo 첼로 독주를 위한 “움직이는 빛”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빛의 움직임을 상상해 보았다. 처음 이 빛이 생겨났을 때의 모습과는 달리 이 빛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움직이며 이 움직임의 방향을 예측할 수도, 움직임을 쉽게 멈출 수도 없다. 빛의 움직임으로 인해 빛의 번짐이 파생되며 움직이는 빛의 속도로 인해 일정한 거리를 넘어서면 이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첼로 솔로로 연주하는 이 곡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는 새로운 상태의 변화를 담은 곡을 작곡하려 시도하였고 작곡과정에서 빛의 움직임을 상상하는 것으로 접근하여 시작하였다. 초연을 맡은 첼리스트 김경란에게 헌정되었다.



류경선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 특별장학생으로 입학하여 학사(B.A.)와 석사(M.M.)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작곡전공으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D.M.A.)를 취득하였으며 예체능계열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현재 고려대 교양교육원 음악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한국작곡가협회의 이사와 창악회의 감사, 그리고 (사)한국여성작곡가회의 감사를 맡고 있다. ISCM, ACL, 21C악회, 창악회, 운지회, 동서악회, 베리타스뮤지케, (사)한국여성작곡가회, 신음악회, 소리목 등의 다양한 악회들과 협회의 회원으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The Galaxy” for Clarinet and Piano

‘빅뱅, 우주, 천문학, 행성, 별, 은하, 블랙홀, 광년, 성운, 성단, 혜성, 초신성, 중력 등’ 내게는 듣기만 하여도 아찔하게 느껴지는 거리감 있는 단어들. 평생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일구던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박사 Carl Edward Sagan의 과학책 『코스모스(Cosmos, 1980)』를 부끄럽지만 얼마전에서만 독서 소모임에서 함께 읽게 되었다. 어린 시절 하늘이나 별, 달, 해, 구름 등을 바라보며 많은 것들을 꿈꾸었던 예전과 달리 오랜 시간동안 자연적인 현상이나 과학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적어졌다가 근래 들어 점차 공상과학영화에서나 출현한 듯한 일들이 실생활에 다가오는 것들을 느껴가면서야 다시 과학과 천문학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다. 중고교생들이 읽는 필수교양서적이라는 책을 한페이지씩 겨우 읽으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아 정작 내 머리 위에서 별이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어렵다. 그렇게나마 우주와 은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끌어당겨 관련 서적과 영상 등을 보고 소모임을 통하여 의견도 나누고 하다보니, 사진과 자료를 보아도 아직까지는(내게만 그럴수도 있지만) 상상력을 더하여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은하에 대한 관심이 생기며, 중심핵과 그 영역에서 활발한 에너지 방출을 하는 은하계와 성운이 웬지 음악적인 상상력을 북돋는듯한 느낌이 든다. 의문스럽고 날카롭고 빛나고 어둡고...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구현할 수 있는 클라리넷과 피아노의 이중주를 통하여 은하에 대한 상상력을 자유로이 표현해 보았다.



신숙경

작곡가 신숙경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데트몰트 음악대학에서 석사를 마쳤다.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독일 데트몰트 미술관 개관식 작품으로 위촉되어 연주 되었고 오페라곡 '민화와 까치'도 데트몰트 대학에서 연주되었다. 그 후 미국 시카고에서 20년을 거주하는 동안 그녀의 현악사중주곡은 시카고 심포니 현악사중주단에 의해 연주되고, 챔버오케스트라곡은 링컨트리오와 벨기에 앙상블 등에 의해 연주되었다. 2022년 고국으로 귀국 후 그녀는 다시 신음악학회, 한국여성작곡가회, ISCM, 베르타스 뮤지케, 아시아 예술학회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얀 가면들의 춤” for Violin, Cello and Piano

피아노 삼중주곡 '하얀 가면들의 춤'은 흑인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이었던 프란츠 파농에 의해 1952년에 쓰여진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 영감을 받아 쓰여진 곡이다. 1952년 파농이 느꼈던 백인우월주의와 소수민족들이 받고 있는 모욕과 동시에 공포는 2023년에 아직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이 곡은 2020년 6월 백인 경찰들에 의해 사망한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미국에서 작곡되기 시작한 곡이다. 이 곡 '하얀 가면들의 춤'은 인간 존엄 가치를 되새기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우리들의 절규의 춤을 표현한 곡이다. 침묵 속의 억누름을 딛고 일어나 하얀 가면을 쓰고 우리는 춤을 춘다.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 자각과 정신적 해방을 갈망하는 우리의 춤은 이 곡에서 강한 한국 민속적인 요소와 색채의 사용으로 잘 반영되어지고 있다.



오이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후, 미국 Univ. of Georgia(석사)와 Univ. of Iowa(Ph.D)에서 공부하였다. 미국, 런던,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하여 ISCM-ACL음악제(홍콩), 히로시마 현대음악제, 국제여성음악제(북경), ISCM 세계음악제(시드니), Asian Music Festival(동경), ACL(싱가포르), 함부르크 등지에서 작품이 발표되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코다가 있는 발레연습>,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옹헤야>, 가족오페라 <소리마녀의 비밀상자> 등이 있다. 문화예술전문지 <클래시컬>에 "오이돈의 음악수다"를 연재하고 있으며, <서양음악사 1, II>(공동집필)와 <음악형식과 분석>을 출간하였다. 현재 호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아노 연탄을 위한 “홍타령”

옛날 옛적, 천안삼거리 주막에 맡겨져 하염없이 전쟁터로 떠난 아버지를 기다렸던 어린 딸 능소가 있었다. 아버지는 버드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딸의 손에 쥐어주며 이 지팡이에 꽃이 피면 내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 말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드디어 지팡이에 꽃이 피었고, 정말 아버지는 무사히 돌아와 기뻐 잔치를 벌이며 “천안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 노래를 불렀다. 바로 “홍타령” 노래이다. 그 “홍타령” 이야기를 피아노 연탄곡에 담았다.

연주자 소개



Flute 안병건

-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석사 졸업
- * 금호영체임버아티스트
- * 멘델스존재단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 *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역임



Violin 박서령

- * 추계예술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졸업



Cello 이한길

- * 추계예술대학교 음악대학 전체수석 졸업
- * 추계예술대학교 정기연주회 협연
- * 조선일보 신인음악회(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 * 한경arte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객원 역임
- * 뮌헨 국립음대 Jan Müller-Wieland 교수클래스 현대음악연주 (Reaktorhalle)



Piano 김현아

-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학사 졸업
-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피아노과 석사 졸업
- *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교수 Marc Geujon 내한공연 반주자 역임 등 국내외 다수 공연
- * 현재 : 포항예술고등학교, 경상북도 예술영재 포항교육원 출강 및 전문 연주자



대금 이현준

-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과정
- * 제35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



Vibraphone 한문경

- * 예원, 서울예고 졸업
- * 줄리어드 음악원 학사 및 석사 졸업
- * 파리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 현재 : 타악듀오 모아티에, TIMF 앙상블 단원, 텐진 줄리어드 음악원 교수



Cello 김경란

- * 선화예고,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석사과정 최우수 졸업
- * 독일 뮌헨 국립음대 Meisterklasse과정 졸업
- * 로마 국제 현대음악 Interpretation 콩쿨 특별상 수상
- * 현재 : 한세대, 진주교육대학교 출강, Quartet SOL, Ensemble UND, 앙상블 비트윈 멤버



Clarinet 김민욱

-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 * 독일 쾰른 국립음대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 Bergischenorchestra 단원 역임 및 강남심포니, 청주시향 객원수석
- * 현재 : 모모 앙상블, 앙상블 아인스 단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연단원



Piano 윤혜성

- * 예원, 서울예고 졸업
-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Diplom 졸업
- * 독일 쾰른 국립음대 Konzertexamen 졸업
- *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현대음악 Master 졸업
- * 독일 앙상블 모데른 아카데미(IEMA) 14/15 장학생
- * 현재 :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중 출강, Ensemble O.N 리더, Ensemble Eins 단원



Violin 안세훈

- *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 Rostock 국립음대 석사 졸업
- * Hans Eisler 국립음대 실내악 석사 수료
- * Mainz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졸업
-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역임
- * 현재 : 예원, 서울예고 출강, 알테무지크 서울 악장, Mov 소속 아티스트, 앙상블 Success 대표



Piano 허자경

- * 예원,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졸업
-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졸업
- * 예원콩쿨 은상, 잘츠부르크 Mozartwoche 오디션 1위
- * 현재 : 호서대 초빙교수
장신대, 계원예중·고 출강, 콤파트 소속



Piano 김아름

-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 * 독일 Wuerzburg 음악대학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 독일 Essen Folkwang 예술대학 성악 반주과 졸업
- * 현재 : 추계예대, 총신대, 협성대, 선화예고 출강
앙상블 비트윈, 린트리오 멤버



Piano 허원숙

- * 서울대 음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졸업
- *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으로 피치카토 수퍼소닉상 수상
- * ICMA(국제클래식음악어워드) 노미네이트
-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창악회(CMSS, Contemporary Music Society in Seoul)는 2022년부터 기존의 창악회 작곡콩쿨과 창악회 정기발표회 및 기획연주회를 "CMSS Festival"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3 CMSS Festival - 제46회 창악회 작곡콩쿨 일정 및 수상결과 〉

| 작곡콩쿨 일정 |

4월 1일 공모 마감

4월 7일 1차 악보심사

4월 22일 2차 본선 연주심사 :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 심사결과 |

최우수상 : 김우진 (만29세, 부산대4) - "Luciferin II" for Flute, Violin, Cello and Piano

우수상 : 이유미 (만20세, 숙명여대2) - "Run away from me" for Flute, Violoncello and Piano

입상을 축하합니다.



www.changak.com
changakhoe@gmail.com